빛의 時間性과 物性化

: 朴光珍의「빛」씨리즈에 관하여

1.

朴光珍이「빛」씨리즈에 관한 着想을 갖게 된 것은 그가 80년도 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빛과 都市空間의 이미지'에서 였다. 빛에 관해서는 도시건물들의 實体 보다는 빛에 의해 감추임과 드러남의 事件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이 사건들이 모두 時間 속에서 이루어 진다는 데에 주목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 아침 햇살 속에 건물들이 실체를 감추고 어렴풋하게 드러내는 외각의 모습…휜히 드러난 모습보다는 이 시간에 빛을 통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그에 파묻혀 생활하면서 '나'와 '인간'을 깨닫지 못한채 지나치지만…그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작업노트〉

빛을 시간들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朴光珍의 작품들이 시작되는 진원지라고 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빛은 만물을 드러내고 분할시키며 거기에 空間이 설정되도록 유인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컨대 도시공간의 分割들은 시간의 事件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 2 차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제2차적인 사건들을 작품의 平面設定에 도입하지만 그러한 시도의 제 1 차적인 수준은 빛이 가질 수 있는 시간성에서 이루어 진다.

2.

빛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작품의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는 平面의 공간분할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도시공간들이 빛의 시간성에 의해 사건 속에서 분할 되듯이 하나의 주어진 평면 또한 이와 類推的 이해를 통해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빛과 물체가 만날 때 생기는 빛의 여러 상태에 관심을 두어 화폭에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作家意識을 투영한 自己空間을 만든다.〈작업노트〉

여기서 그는 物理的 事件으로서의 빛의 시간성을 마침내 画面의 그것으로 포용하는 절차로서〈自己意識의 投影〉이라는 方法에 주목하였다.

이 후자에 관한 한, 그의 작품은 마음의 뜻(志向性)이 향하는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물질적 시간이거나 공간이 아니며 심리적 시간이거나 공간은 더욱이 아니다. 그의「빛」씨리즈는 어느덧 자연의 빛으로 부터 인간의 의식의 참여에 의해 구체화되어진〈物性〉으로서의 빛으로 이해되고 있다.

3.

〈自己空間〉이라는 말이 이 경우에 잘 어울릴 것 같다. 빛의 시간을 작가의 의식 가운데에 침투시켜 그 둘을 어떻게 종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자기공간의 직접적인 인식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물리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역시 하나의 類推로서 자기공간의〈物性化〉가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 황량하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線과 텅빈 상태, …무엇을 앙금처럼 가라앉히고 무엇을 걸러내야 할지, 빈 공간의 의미, 침묵의 의미, 담담과 무심, 최소의 표현, 절제된 내뱉알음—내리 쏟아지는 빛의 포괄적인 의미.〈작업노트〉

빛의 문제는 결국 자기공간의 객관화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객관화의 과정은 모두 캔버스의 物性的 條件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조건들이란 텅빈 평면으로 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분할하고 石粉과 젯소와 아크릴릭컬러의 모노크롬에 의해 최초의 着地作業에 임하며 그 위를 다시 분할된 면들 속에 연필과 파스텔의 筆線을 투입하되 身体의 표정을 실어넣는 모든 수행들을 통하여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표면에는 여전히 빛과 물체, 도시공간과 작가의 마음이 맞닿아 빚어내는 밝음(흰빛)과 어둠(검은 빛)의 대조와 그 대조 속에 거칠게 표정짓는 필선들의 자태가 작가와 인간들의 언어들을 배태하고 있다. 분할선들은 대개가 수평과 사선, 흔히는 캔버스의 윤곽을 따라 견고하게 테를 짓는 수직수평선의 것들이며 색채는 극단적으로 절제하여 마음의 白光을 자아낸다. 해맑음, 투명의 극치에 도달하였다고나 할까, 그의「빛」은 어느덧 心魂의 울림으로서 나타난다.

4.

81년 부터 본격적으로「빛」을 탐구하기 시작한 朴光珍에 있어서 금번 개인전은 그동안의 탐색의 결과들을 가장 요약된 형태로 보여 주고 있다. 초기의 기하학적 구획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지만 보다더는 간결과 여백이 증가하였고 작가의 內心에서 비롯되는 投射의 빛들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동양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虛의 영롱함이며, 석분의 마티엘과 필선들의 거치름이 통합해서 자아내는 맵씨에서 가야금의 선율들이 느끼어 진다.

이제 그의「빛」씨리즈는 意圖에서 부터 物性化의 작업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분수령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더 간략화되어진 검정, 혹은 백색의 평면은 빛의 物性的 姿態 바로 그것을 단번에 감지케 하는데에 성공하고 있고〈컴바인〉형식에 의한 디스플레이方式의 배열에서 그 스케일의 감각을 엿보게 하고 있다.

요컨데 그의 빛은 物性의 빛으로서, 마음과 육신, 시간과 공간, 물체와 정신이 中性化되어진 媒介体에 도달하였다. 작품은 흰색과 검정으로 단순히 보이나 이미 물질로서의 색료들이 아니며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어떤 객체로서의 마음, 정확하게는 客觀化된 마음으로서의 빛이다. 물리적인 빛의 시간성이 인간의 주체적 의식 속에 接木된 마음의 빛으로서의 시간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조심스럽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작업이 닫혀진 独我論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열려진 의식 속에서 탄생을 기다리는 하나의 物性空間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빛이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간의 탐색의 여러 국면들을 통해서 획득되었음을 금번의 개인전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1987. 1.

金 福 榮(美術評論家)